

우리시대 '문화'의 큰 줄기 탐구

출판사마다 '문화론' 시리즈 발간…이론과 비평 고루 다뤄

바야흐로 문화의 시대다. 문화라는 광범위한 개념을 진단하는 각종 문화이론과 문화비평, 다양한 담론이 범람하고 있다. 90년대 초, 사회주의체제의 몰락과 대중소비사회의 본격 부상, 포스트모더니즘의 쟁론 등과 더불어 촉발된 문화론은 지식인들의 대안적 이론들 모색과도 궤를 같이한다. 백가쟁명을 방불케 하는 다양한 문화이론은 이론과 실제비평 양측에서 고루 다루어지고 있고 이는 각 출판사의 문화론 총서에 힘입은 바 크다.

유물론적 문화론과 실제비평

문화비평 세대들에 의해 주도된 문화논의는 우선 이론적인 접근에서 이루어졌다.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이론 전통과 영국 베밍엄학파의 문화연구, 푸코와 들뢰즈를 위시한 프랑스 현대철학 등의 새로운 흐름을 폭넓게 수용한 문화이론은 그 근저에 마르크스주의라는 큰 틀을 바탕으로 현대사회를 탐구한다. 아울러 프로이트와 니체의 맥락을 잇는 정신분석학도 그 큰 줄기를 이룬다.

국내에서 문화이론의 봄을 일으킨 것은 국내 최초의 본격 문화잡지인 계간 『문화과학』(문화과학사: 발행인 강내희) 동인들이다. 강내희·심광현·이득재·이진경·이동연 등 인문사회과학 분야 신진학자들이 중심, 육체·욕망·공간·사이버스페이스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논문과 실제비평을 내놓으면서 문화론의 지형을 만들어 갔다. 알튀세르의 상부구조론과 푸코와 폐쇄의 언어학을 통해 접근하는 변혁의지 등을 소개한 이들은 유물론에 근거한 서구이론 전파에 그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90년대 문화론의 새 지평을 연 주역들이다.

『문화분석의 몇가지 길들』 『공간, 육체, 권력』 『문화연구의 새로운 토픽들』 등이 연이어 발간되어 계간 『문화과학』 안팎에서 이루어진 이론과 실제비평을 담았다. 최근 문화과학사는 〈문화과학 테크노 컬처〉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는데 이 시대의 주요 쟁점인 사이버문화를 다룬다. 미디어밸리의 연구원 홍성태씨의 『사이버공간, 사이버문화』와 『사이보그, 사이버컬쳐』를 내놓았다.

권위적이고 현학적인 이론보다는 실제비

문화론은 이제 한때의

유행이 아니라

인문학의 한 부분으로

점점 무게를 더해가고

있다. 세기말의

소비문화 시대에 인간의

욕망과 무의식을 더욱

깊이 있게, 속도감 있게

진단하는 저술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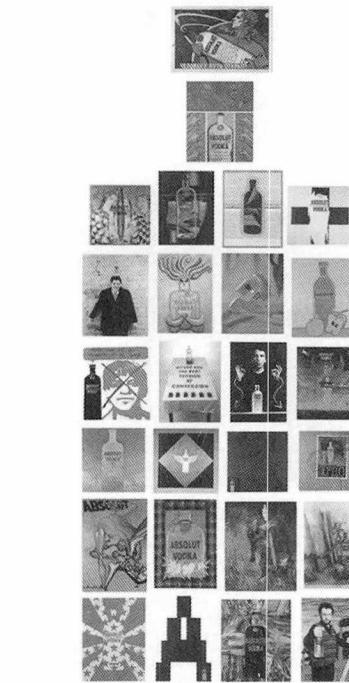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평과 미학적 복디자인을 추구한 현실문화연구(대표 김진송)는 도발적인 내용과 과격적인 편집의 문화연구서를 잇달아 출간, 주목을 받았다. 김진송·엄혁·김수기 등의 미술비평가 출신 그룹으로 구성된 '현실문화연구' 동인은 주로 상품미학에 관심을 기울여 왔던 미학전공자들이다. 현실문화연구사는 소비문화와 공간문화를 다룬 『압구정동: 유도피아 디스토피아』라는 책을 출간하여 이목을 끌면서 등장했다. 이후 『TV: 가까이 보기, 멀리서 보기』 『광고의 신화, 욕망, 이미지』 등 대중매체비평서를 폐냈고 세간에 신세대 논쟁을 일으킨 『신세대 네멋대로 해라』와 『신세대론: 새로운 이미지와 새로운 감수성』 등을 잇달아 폐내 각종 쟁위와 분야의 문화현상을 진단했다.

이들 책으로 인해 일탈문화 내지 하위문화에 불과했던 대중문화의 다양한 삶과 취향은 사회를 읽는 일차적 텍스트로 부상했고, 문화는 이제 텍스트의 내용 뿐 아니라 수용자와 어떤 관계와 형식을 맺고 소비되느냐를 분석하는 사회학적 연구 분야가 되었다.

사회학이나 철학분야 뿐 아니라 언론학분야에서도 문화론은 뜨거운 쟁점이 되었다. 한나래에서 출간하는 '한나래언론문화총서'도 그 일환. 이 시리즈는 주로 미디어와 문화의 관계를 천착한다. "미디어는 메시지다"라는 맥루한의 언명처럼 이 시대 문화현상의 주요 산실이 미디어문화라는 측면에서

스웨덴의 압솔루트 보드카 광고(위). 영화 〈바이브레이션〉의 한 장면(아래).



ABSOLUT GLASNOST.



대중매체비평은 간과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깊이 있고 속도감 있는 저술 요구돼

새물결(대표 홍미옥)에서 폐내는 〈우리시대의 문화: 호모 심볼리쿰〉이라는 총서는 〈그람시와 함께 읽는 문화 시리즈〉와 『포스트모던인가 새로운 중세인가?』 등 웜베르토 에코의 저작을 거의 대부분 번역해 출간했고, 피에르 부르디외와 미셸 푸코의 저작들을 출간했으며, 최근 폴 라파르그의 『게으를 수 있는 권리』와 더글러스 켈너의 『미디어문화』 등을 폐냈다. 근간인 『게으를 수 있는 권리』는 1883년에 나온 책. 19세기말 프랑스의 노동자들 현황을 중심으로 저자는 '일 중독이 과연 사회에 행복을 가져올까'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불황의 해결책은 무조건 일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충분히 쉬면서 새 기술, 새 아이디어를 찾는 데 있다는 것이다. 고부가가치 산업에 투자해야한다는 1백년전의 안목이 놀랍다.

시각과언어(대표 김선희)에서 나온 『이미지의 삶과 죽음』 『키치란 무엇인가』 『빼딱하게 보기』 『미셀푸코』 『베일 벗기기』 『이미지는 모든 것을 삼킨다』 등도 각각 라캉과 푸코 등의 이론이 원용된 문화비평서들로 문화연구의 베스트셀러에 꼽힌다.

문화론에 대해 단발적으로 단행본을 냈던 민음사(대표 박맹호)도 최근 『21세기 문화총서』를 기획하고 있다. 『디지털 도서관』 『제2미디어 시대』 『테크노폴리』 『데이터스 모그』 등으로 이어질 이 시리즈의 첫째권

출판사별 문화론 총서 목록

『카오스의 아이들』은 미국의 가장 따끈따끈한 최신 문화비평서다. 이 책은 기성세대와 사고와 감각의 패러다임이 다른 뉴타입세대들과 그들의 문화를 진지하게 분석하고 있다. 롤 플레잉 전자게임과 에반젤리온 같은 만화, 아이들의 장난감 등 기층의 하위문화를 대상으로 그 만만치 않은 산업규모와 파급효과와, 그리고 그 내용의 철학적 의미들을 타일하게 분석해낸 책이다.

그밖에 현대미학(대표 김성자)와 눈빛(대표 이규상), 이론과 실천(대표 김태경), 개마고원(대표 장의덕) 등에서 각각 대중매체 비평과 상품미학비판, 강준만교수의 대중문화, 인물비평등을 출간하고 있고 나남(대표 조상호)의 『텔레비전과 현대비평』 등이 있으며 옥토에서는 밴 애거의 『비판으로서의 문화이론』을 펴내 한층 이론의 깊이를 더했다.

이런 문화이론서들은 사회학·철학·문학·언론학 등에 광범위하게 관여하고 있고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학제를 넘나드는 연구들이다. 각기 출발점은 달라도 문화현상은 학자들의 주요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총론과 각론을 통해 시대정신을 탐구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문화론에 대해 현상 나열에 그치는 감각적인 글이나 목소리를 높이는 거품성 논의라는 비판도 적지 않지만, 문화론은 이제 한 때의 유행이 아니라 인문학의 한 부분으로 점점 무게를 더해가고 있다. 세기말과 소비문화시대에, 이를 추동시키는 인간의 욕망과 무의식을 더욱 깊이 있게, 한편으로는 변화하는 사회를 속도감 있게 진단하는 저술과 출판이 요구된다 하겠다. 또한 외국의 현대사상가에 필적하는 국내 사상가의 출현과 지평을 넓히는 저술도 절실히 요구된다.

— 마정미기자

	제 목	저 자		제 목	저 자
한나래 언론문화 총서	대중매체와 페미니즘 현대사회와 광고 대중매체의 이해와 활용 광고비평: 광고표현, 그 이론과 원칙 커뮤니케이션 사상가들 텔레비전의 이해 스튜어트 홀의 문화이론 문화연구 입문 광고문화-소비의 정치 경제학 대중문화의 패러다임 문화, 일상, 대중 만화보기와 만화읽기 웃음의 해석학, 행복의 정치학 사운드의 힘 우리시대의 대중문화 뮤직비디오,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얼트문화와 록음악	김창남 외 킴 리졸 외 강상현, 채백 김광수 강준만 앤드루 굿윈 임영호 그雷엄 터너 셋 잘리 원용진 박명진 외 정준영 김종엽 사이먼 프리스 허문영 엔 키플란 신현준	새물결 우리시대의 문화: 호모 심볼리즘	대중문화, 언어학: 저널리즘 포스트모던인가 새로운 중세인가? 철학의 위안 소크라테스 스트립쇼를 보다 글쓰기의 유혹 스누피에게도 철학은 있다 대중의 영웅 소설로 읽는 현대철학 상징폭력과 문화재생산 사진으로 보는 영화의 역사 미셀푸코, 섹슈얼리티의 정치와 페미니즘 섹스라는 기호를 다루는 사람들 개을을 수 있는 권리 미디어 문화	안토니오 그람시 움베르토 에코 움베르토 에코 움베르토 에코 움베르토 에코 움베르토 에코 움베르토 에코 이종관 피에르 부르디외 세람 미셀 푸코 김상태 풀 라파르그 더글러스 웰너
현실문화 연구	압구정동: 유托피아 디스토피아 TV 가까이 보기, 멀리서 보기 광고의 신화, 욕망, 이미지 신세대 네멋대로 해라 결혼이라는 이데올로기 신세대론: 혼돈과 질서 섹스, 포르노, 에로티시즘 회사가면 죽는다 문화연구 어떻게 할것인가 문화연구와 문화이론 섹슈얼리티: 성의 정치 여성망명정부에 대한 공상 현대성과 현대문화 문화연구를 위한 현대사상가 50 스펙터클의 사회	강내희, 도정일 외 강준만, 강영희 외 이득재, 심광현 외 미메시스 조주현, 김정희 외 국승표, 권용남 외 이재현, 이성욱 외 김종일 외 현실문화연구 존 스토리 제프리 웩스 글로리아 스타이넘 스튜어트 홀 외 존 레흐트 기 보드드	시각과 언어	이미지의 삶과 죽음 키치란 무엇인가 빼딱하게 보기 미셀푸코 베일벗기기 이미지는 모든 것을 삼킨다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문화이론 포스트모더니즘과 일본 아방가르드 사전 메디올로지 교도소를 급습하다: 20세기 문화비판 도시주의, 식민주의, 세계경제 포스트모던 지리학 헤테롤로지와 포스트모더니즘 푸코와 동시대인들	레지스 드브레 아브라함 몰르 슬라보에 지제 디디에 에리봉 마샬 불론스키 스튜어트 유웬 아도노(이하 발간예정) 하루투니언 미요시 리처드 코스텔라에츠 레지스 드브레 피터 월튼 엔소니 킹 에드워드 소자 J. 페파니스 디디에 에리봉
문화과학 신서	문화분석의 몇가지 길들 공간, 육체, 권력 문화연구의 새로운 토픽들 사이버공간, 사이버문화 사이보그, 사이버컬쳐	강내희, 이성욱 외 강내희 외 이동연 홍성태 홍성태	민음사 21세기 문화총서	카오스의 아이들 디지털도서관 제2미디어 시대 테크노폴리 데이터 스모그	더글러스 러시코프 김정근 외(발간예정) 마크포스터() 닐 포스트만() 데이비드 샌크()